

성인자녀와의 동거여부와 우울증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

김 학 주*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지지, 우울증, 그리고 성인자녀들과의 동거여부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뉴욕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인 한국 이민 노인 175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 분석하였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이민 노인들의 가족들과의 별거여부와 우울증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공변량 구조분석을 이용하여 변인들간의 구조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최적의 이론구조모델이 선정되었다. 자료분석 결과, 미국내 한국 이민 노인들의 우울증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지의 여부가 한국노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완충효과 가설(buffering-effect hypothesis)이 직접적 효과 가설(direct-effect hypothesis)보다 더욱 적절한 대안임이 검증되었다. 그러므로, 미국 내 아시아계 이민노인들의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교육 및 지역사회 참여활동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당 성인자녀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확충함은 물론, 높은 우울증세를 보이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위로, 격려해 줄 대상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방안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노인, 우울증, 구조방정식 모델, 사회적지지, 미국 이민사회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서 론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위의 사회적 지지의 역할은 이전의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도 중대한 관심사였다(Cervilla & Prince, 1997; Forsell & Winblac, 1998; Peirce, Fronc, & Russell, 2000; Potts, 1997). 즉,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이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얻는 심리적·물질적 형태의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의 건강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특히, 보건심리학분야에서 개인의 사회적 지지수준은 보건상태와 유의미한 관계성을 가지며 특히, 사망률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는 사실이 장기간의 패널 연구들을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표본을 상대로 조사한 Berkman과 Syme(1979)의 12년 간의 조사연구나 Blazer(1982)의 30개월 간의 장기 패널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수준이 정신건강 결과는 물론 심각한 육체적 질병과 밀접한 결과를 가짐을 보여준다. 물론, 관련된 연구 결과들 중에는 명확한 이론적 체계 없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구체적인 인과관계 이해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량의 실증적 증거들이 지역사회 또는 가까운 친지, 가족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정신복지의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e.g. Carusel, 1976; Dean, Kolody, & Wood, 1990; Gottlieb, 1981, 1983; Sarason & Sarason, 1985).

그러나,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적 지지가 노년생활에서의 심리적 건강의 결정 요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실증적 증거들이 지난 20여 년 간 현저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건강에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이론적 과정에 대한 이해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실증적 연구에서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이민 노인들의 가족들과의 동거여부(잠재적 스트레스 요인)와 우울증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이론적 메커니즘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연구목적을 위하여 구조방정식모델 접근법을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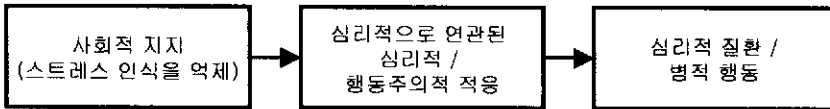
2. 문헌연구

1) 사회적 지지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고찰

개인의 사회적 지지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이해는 사실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이론적 가설들을 가지고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인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주요 가설들 중, 가장 대표적인 그러

나 상반적인 두 가지 이론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모델로 직접적 효과(direct or main effect) 모델과 완충효과(buffering or moderating) 모델이 있다(Lin, 1986). 직접적 효과 모델의 경우, 삶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과는 관계없이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건강 사이의 직접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편 완충 효과 모델은 사회적 지지의 영향이 잠재적 생활 스트레스요인과 심리적 복지간의 관계 내에서 심리적인 긴장상태를 완화한다는 가정을 중요시하고 있다.

(1) 직접효과 메커니즘(direct effect mechanism)



(2) 완충효과 메커니즘(buffering effect mechanism)



<그림 1> 사회적 지지가 잠재적 스트레스 요인과 심리적 질환관계에서 조절변수로서 영향을 미치는 과정

<그림 1>은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정신적 건강과 어떠한 이론적 메커니즘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 주고 있다. 직접효과 메커니즘의 경우, 높은 사회적 지지수준은 심리적 질환이나 병적 행동을 억제하고 긍정적 행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와 빈번한 접촉을 유지하며 충분한 여가 활동을 유지하는 개인들이 높은 심리적 건강을 유지함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 스트레스 요인들이 고려될 경우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나 심리적 건강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설명력을 결여하고 있다. 한편, 완충효과 메커니즘에서는 높은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인식 억제효과로 인하여 잠재적 생활 스트레스 요인들을 실제상황에서 스트레스로 인식할 가능성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이는 심리적 질환/병적 행동 유발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필연적 관계성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일 수 있고, 다른 변수에 의해서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명확하며 다양한 실천적 접근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사실, 사회적 지지가 직접적 완화변수 역할로서 스트레스 요인과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국외의 여러 연구 사례(Bechr, 1995; Kahn & Byosiere, 1992)에서 분명히 확인되고 있지만, 완충적 메커니즘에서의 효과는 실증적 측면에서는 확실한 지지를 받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Cohen & Wills, 1985; Kraus, 1997). 비록 최근의 몇몇 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의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지만(Hay, Saunders, Flint, Kaplan, & Blazer, 1999; Wallsten, Twood, & Blazer, 1999), 다른 여러 유의미한 연구에서는 완충 효과에 대한 어떠한 중대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명한 Dorman과 Zapf(1999)의 연구의 경우 구조모형모델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내 젊은 직장인들의 스트레스요인과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적인 효과를 측정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그들의 결과는 사회적 지지에 있어서 어떠한 중요한 완충적인 효과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오히려 높은 수준의 생활 스트레스 상황에서, 업무 내에서 주어지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이 우울증을 감소시켰음을 알아내었다.

이런 상반된 결과들에 대해, Cohen과 Wills(1985)의 설명은 서로 다른 종류의 심리적 지지와 스트레스 요인간의 가능한 조합에 의해 사회적 지지의 역할이 직접적 효과모델 또는 완충적인 효과모델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대립적이었던 이 두 가지 가설 모두에게 조건부 지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같은 사회적 지지라 할지라도 형태에 따라 다른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정이나 정보의 전달이 주목적인 사회적 지지인 경우, 비록 이론적 관계가 느슨할지라도 직접적인 효과를 산출할 경향이 큰 반면, 사회적 교제형태의 사회적 지지의 경우 스트레스요인과 훨씬 복잡하게 어울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므로, 스트레스요인-긴장 관계를 직접적인 효과를 주기보다는 완충,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주장의 핵심은 완화 효과에 관한 모델증명이 애매모호한 이유가 개념적으로 서로 다른 형태의 심리적 지지 측정도구를 사회적 지지라는 일반 용어로 혼용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점의 인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최근의 사회적 지지의 형태에 관한 양적, 질적 조사연구들은, 서로 다른 형태의 사회적 지지들이 서로 다른 메커니즘의 정신건강에 효과가 있음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관계된 중요 예들로 Li, Seltzer, 그리고 Greenberg(1997)는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건강에 직접적이며 일관성 있는 효과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우울증에 주요한 효과가 없는 반면, 감정적 지지의 경우, 아내들을 위한 응답자의 행동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Wallsten, Tweed, 그리고 Blazer(1999)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장애인 표본조사를 통해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는데, 사회적 지지의 역할문제에 대하여 관련 지역사회 노력이 피 대상자들에게 긍정적이 면에서 평가될 때만 우울증 징후 수준을 감소시켰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2) 한국 이민노인에 있어서의 사회적 지지의 역할

상대적으로 주변인들과의 접촉이 적어 낮은 사회적 지지를 보이는 노인그룹에 있어 심리적 건강수준이나 질환과 관련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의 중요성은 최근 연구들을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한 예로, Russell과 Cutrona(1991)은 12개월 이상 지역사회 노인들의 표본을 이용하여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조사하였는데 낮은 사회적 지지가 우울증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의 증가에도 간접적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Dean, Kolody, Wood(1990)은 성인자녀들과 다른 친척들과의 접촉여부는 지역사회 노인의 심리적 스트레스 감소에 강력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의 주 한계점들 중의 하나로 미국내의 백인 노인 중심의 연구결과가 과연 미지

의 나라로 이동한 이민 노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더구나 미국 내 이주한 아시아계 노인의 경우, 동거형태들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사회로 통합 되는 아시아계 노인들의 가족과의 동거형태가 어떻게 변화했으며 노인들의 심리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Laveist,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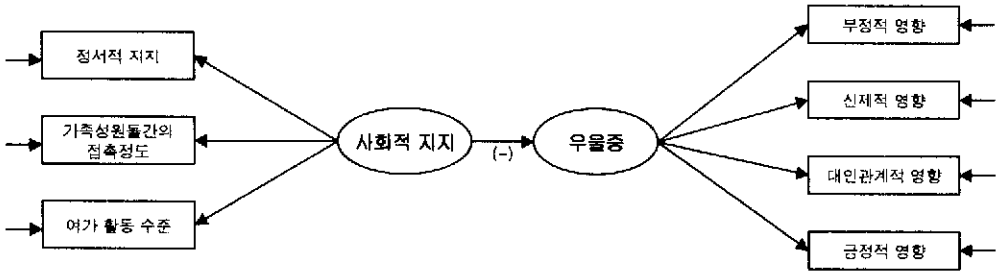
미국내 이민 한국노인들이 경험해야 하는 급속한 가족과의 동거형태의 변화는 그들의 우울증 유발 등의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예로 Kim과 Hurh(1991)은 약 절반에 이르는 한국노인 응답자들(49.0%)이 미국으로의 이민에 도움이 되어온 성인 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아시아계 소수민족 노인들의 경우처럼 미국 내 한국 이민 노인들을 위한 제대로 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수준의 역할을 결정짓기 위한 잠재적 스트레스 요인으로서 성인 자녀와의 동거여부는 중요한 변인으로써 고려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다.

예로부터 한국 사회에서의 전형적인 노인의 동거형태는 유교적 관습 속에서 자식의 책임을 기반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부모와 자식간에 세대관계로 정의되어진다. 즉 성인자녀들이 일단 부모가 나이가 들면 부모부양의 도덕적 의무를 가지며 효도의 의무수행을 기대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므로 노부모와 그들의 성인 자녀들이 함께 살고 서로 의지하는 동거형태가 적극적으로 선호되었던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상적인 가정은 최근 미국에 이미 온 한국 노인들의 독립적인 주거형태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Kim & Hurh, 1991; Yoo & Sung,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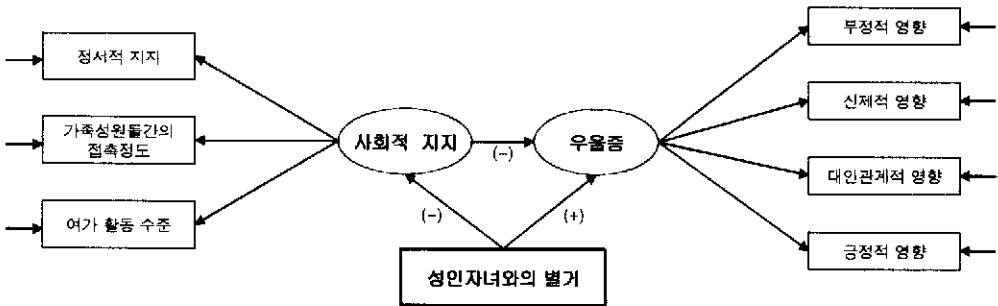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성인 자녀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노인들에게 더 큰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임이 예측될 수 있다. 즉 직접적 효과 가설은, 노인들이 그들의 자녀와 함께 사는지에 관계없이 사회적 지지가 노인들의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반되는 대안인 스트레스-완충 가설의 경우 자녀와의 별거(잠재적 스트레스 요인)가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좀더 해로운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예: 우울증 수준의 증가).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동거여부와 관련하여 한국 노인 이민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이론적 가설의 적용성을 평가, 검증하고자 한다.

아래 <그림 2>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우울증간의 위의 이론적 상관관계를 구조 방정식 형태의 직접적 효과와 완충효과 가설 모델로 나누어 도식하여 보여주고 있다

2-1. 직접적 효과 모델



2-2. 완충효과 모델



<그림 2> 사회적 지지와 우울증간의 구조방정식 가설 모델

3.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 최소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한국노인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으며 뉴욕 시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자녀를 둔 175명의 한국노인이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시간적 제약과 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이민노인들을 총망라하는 명단이 없다는 제한점 때문에,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서 모집단에 대한 목적 표본추출법(purposive sampling)에 의하여 추출되었으며 직접설문조사방법을 채택하였다. 설문조사는 동양의 문화적 속성과 이민자들의 일반적 성향에 비추어 볼 때, 미국 내 많은 한국 이민노인들이 우편설문조사에 익숙지 않은 한국 이민 노인들이 설문조사에 응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직접설문조사는 질문자가 개별 분석대상과 라포를 형성하면서 개별 질문들에 대한 성실한 응답을 얻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노인 응답자가 각 항목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총 191명의 노인들에게 개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수된 설문지들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조사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설문지 16부를 제외한 175

부를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응답률 = 91.6%).¹⁾

2) 측정 도구

(1) 우울증(Depression symptomatology)

미국내 한국이민 노인들의 우울증을 측정하기 위해,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인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CES-D) scale(Radloff, 1977)이 사용되었다. CES-D 척도는 지역사회 표본조사에서 널리 이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Radloff, 1977). 4개의 세부 요인영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 부정적 영향(depressive affect): 좌절, 두려움, 외로움 등에 관한 7개 항목, 2) 신체적 영향(somatic symptoms): 의욕상실, 피곤함 등에 관한 7개 항목, 3) 대인관계적 영향(interpersonal relations): 불친절, 혐오에 관한 2개 항목, 4) 긍정적 영향(wellbeing): 유쾌함, 행복, 희망, 즐거움에 관한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각각의 증상을 측정함에 있어, 응답결과들은 0에서 3까지의 리커트 식 4점 척도가 사용되어 점수화되었다. 0 = 결코(일주일에 하루미만), 1 = 때때로(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 2 = 자주(일주일에 3일 또는 4일), 3 = 항상 또는 거의 항상(주당 5일 이상) (참고로 본 연구의 표본(N=175)을 대상으로 산출된 Cronbach 알파 신뢰계수값은 .93이었다).

(2) 사회적 지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S)에 의해서 개발된 한국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지지망 척도가 미국내 한국 이민노인들의 사회적 지지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이가옥 외 3인, 1994). 노인응답자들이 받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검토하기 위해서 크게 3 가지 형태의 요인들로 구성된 일련의 사회적 지지 질문들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1) 정서적 지지는 가족·친척 및 지역사회내의 노인에 대한 정서적 지지의 구체적인 질과 양을 측정하기 위한 11항목으로 평소 본인의 걱정거리나 문제점을 들어 주는 사람의 존재여부, 접촉빈도와 만족도로 측정되었으며, 2)가족과의 접촉정도는 지난 한해 자녀·친척과의 전화/편지 또는 대면을 통한 접촉횟수를 측정하였고(6항목), 3) 여가활동 수준은 응답자 본인의 여가활동의 질과 양을 측정하기 위한 10항목으로 나누어지며 각종 취미활동 및 단체활동에 대한 월간 참여빈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참고로 항목간의 신뢰도 검정은 알파 값 .83으로 나타났다.

(3) 자녀와의 동거여부

본 연구에서 노인들의 성인자녀와의 동거여부는 당사자가 자녀(들)과 함께 사는 지(0), 그렇지 않은지(1)의 선택형 질문으로 측정되었다.

1)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뉴욕에 위치한 주요 대표 한인노인기관인 The Korean Community Services of Metropolitan New York(KCS)와 The Young Women Christian Association (YWCA) in Queens에서 개인별 인터뷰에 의해 추출되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한인 노인들의 스트레스 변인이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조사하기 위해서 개발된 가설적 모델의 검증에 위해 공변량 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을 사용하였다. 공변량 구조분석을 위해 Joreskog과 Sorobom에 의해 개발된 LISREL (Linear Structural Relation) version 7.0 통계 패키지가 사용되었다.

4.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에 대해 아래 <표 1>은 표본으로 선택된 미국내 한국노인 응답자의 해당특성을 살펴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설문조사 대상자 175명중 68.6%가 여성으로 여자 노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자 노인들의 활발한 사회참여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이민노인들의 연령 분포의 경우 60세에서부터 86세에 이르렀으나 평균값은 66.9세(SD=5.83)로 대다수의 조사 참여 노인들이 비교적 젊다고 말할 수 있다. 혼인 관계에 대해서는 절반이상의 이민 노인들이(59.4%) 기혼자에 해당되었으며 별거는 4.6%, 이혼은 6.3%, 미망인은 각각 29.7%를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들 중에서 각각 44.6%가 고등학교를, 23.5%는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드러나 약 70%의 노인들이 고졸이상에 해당되었다. 이 결과는 미국의 백인노인들의 교육수준은 물론 한국 내 노인들의 평균 교육수준과 비교하여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라 볼 수 있는데 향후 미국의 한국이민 노인에 관한 연구에 있어 이러한 일반적 특성변수에 대한 연구 시 통계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직업유무에 있어 전체 조사대상의 29.0%가 조사 당시(1997년 초)에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여성의 참여율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아 약 30.7%의 여성들이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의 형태로 일을 하고 있었다. 표본대상 노인들의 평균자녀수는 3.34(SD=1.48)명으로 드러났으며, t-test의 결과 남녀간의 통계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2) 연령별 빈도분포를 살펴본 결과 60세에서 69세 사이의 젊은 노인이 73.7%에 달하였다

<표 1> 뉴욕에 거주하는 한국 이민노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단위: %)

변 수	계 (n=175)	여성 (n=120)	남성 (n=55)
연령			
60-69세	73.7	70.0	81.8
70-79세	21.1	25.8	16.4
80세 이상	5.2	4.2	1.8
성별			
여성	68.6	-	-
남성	31.3	-	-
결혼상태			
결혼	59.4	49.2	81.8
별거	4.6	5.0	3.6
이혼	6.3	8.3	1.8
과부	29.7	37.5	12.7
교육수준			
무교육	5.7	6.7	3.6
초등학교	13.1	13.3	12.7
고교중퇴	13.1	14.2	10.9
고등학교 졸업	44.6	43.3	47.3
대학교육 중퇴 이상	23.5	22.5	25.4
고용상태			
무직	71.0	69.3	72.4
시간제 근무	18.8	21.3	16.1
전일제 근무	10.2	9.4	11.5
		평균(M)	
연령	66.9 (5.83)	67.2 (6.14)	66.1 (5.07)
자녀수	3.34 (1.48)	3.34 (1.51)	3.30 (1.38)

2) 한국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여부

아래 <표 2>에서는 뉴욕에 살고 있는 한국 이민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여부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응답자들(n=175) 중 약 26.9%만이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많은 남자 응답자들이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혼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점(89.1%)은 이민노인들에게 별거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뉴욕에 거주하는 한국 이민노인들의 자녀와의 동거여부

(단위: %)

자녀와의 동거여부	계 (n=175)	여성 (n=120)	남성 (n=55)
자녀와 따로 사는 경우(n=128)	73.1	65.8	89.1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n=47)	26.9	34.2	10.9

3) 완충적 효과가설 모델 검증

스트레스 조절변수로서의 사회적 지지의 효과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발된 가설적 모델의 검증을 위해, 일반 공변량 구조모형을 구성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하는 주요 이유는 종속변수가 설명하는 변수집단의 편차(분산값) 비율을 검증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유도된 다양한 특정 모델들에서 가정된 구조적 관계의 개연성을 명확히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즉 구조방정식 모델은 조사자로 하여금 직·간접 효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를 모형 안에서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Joreskog & Sorbon, 1993, p.19). 이러한 분석에서 제안된 모델 또는 시험된 모델이 최초의 행렬을 재생할 수 있도록 조사자에게 정보를 주는 일련의 적합도 지수를 제공하며 특정 모델의 적합성여부는 관련된 적합도 함수(fit function)에 대한 χ^2 테스트의 결과가 통계적 유의미를 갖느냐는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Byrne, 1998).

아래 <표 3>은 각 하위 측정항목에 관한 신뢰도 검증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때 R^2 점수는 신뢰도 수준을 측정한 값으로 각 측정 항목들에 대응하는 내재변수를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을 나타낸다. 사회적 지지에 대응하는 세 가지 측정 항목에 관한 R^2 값의 경우 .18(여가활동 수준)에서부터 .40(정서적 지지)에, 그리고 우울증세를 측정하는 4가지 항목별 R^2 값은 .28(공정적 효과)에서부터 .78(부정적 효과)에 걸쳐 있다. 이 때 R^2 점수의 제공근은 α 신뢰도 상관계수값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의 가설모델의 내재변수에 대한 α 계수의 범위는 .42(최소치)에서 .88(최대치)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사회적 지지와 우울 증세

척 도	측정 항목	R ²
사회적 지지	1) 정서적지지	.40
사회적 지지	2) 가족성원간의 접촉 정도	.24
사회적 지지	3) 여가활동 수준	.18
우울 증세	1) 부정적 영향	.78
우울 증세	2) 신체적 영향	.53
우울 증세	3) 대인관계적 영향	.46
우울 증세	4) 긍정적 영향	.28

<표 4>는 χ^2 검증을 사용하여 두 가지 서로 다른 제안된 구조방정식모델이 얼마나 전체적으로 적합한지를 알려주는 측정값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4> 적합도 판명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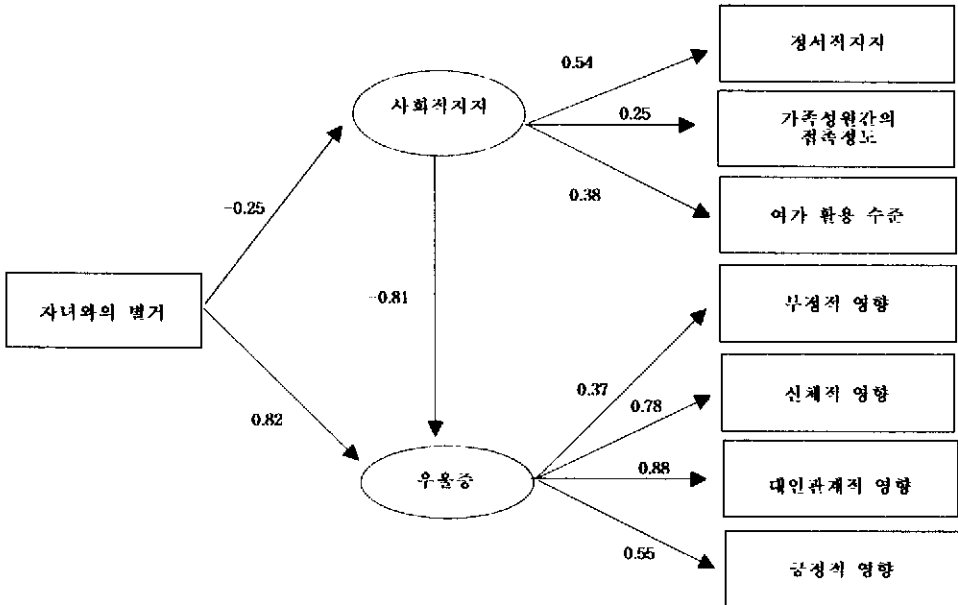
적합도	직접적 효과 모델	완충효과모델
χ^2	108.01	28.28
df	20	18
Comparative Fit Index (CFI)	.54	.98
Incremental Fit Index (IFI)	.79	.98
Relative Fit Index (RFI)	.66	.90
Normal Fit Index (NFI)	.76	.94
Non-Normal Fit Index (NNFI)	.70	.96
Goodness of Fit Index (GFI)	.88	.96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78	.92

그 결과 직접적 효과 모델의 경우, 카이 자승 값이 108.01로 (df=20; p<.01)로 나타나 미국 내 한국 이민노인들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로 적합지 않음을 보여준다. 적합도 측정을 위한 다른 지수들의 결과 또한 .90이하의 결과로(CFI=.54, GFI=.88) 직접적 효과를 측정한 모델이 임상 데이터에 적절한 부합치를 가지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안적인 완충모델의 경우에는 카이 자승 값이 28.28(df=18; p<.05)로 높은 모델 적합도를 보이고 있으며 확인 요인분석을 통한 검증결과도 역시 높은 부합치를 가지고 있음이 발견되었다(CFI=.98, GFI=.96).³⁾ 이러한 결과는 뉴욕에 거주하는 한국 이민 노인들의 경우 사회적 지지도가 자녀들과의 별거의 영향을 완화하여 우울증세의 증가를 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결과적으로 완충 효과 모델이 실제 데이터의 수용 가능한 대안임이 분석결과

3) Comparative Fit Index(CFI), Incremental fit index(IFI), Normed fit index(NFI), Non-normed Fit Index(NNFI)의 관련된 다른 적합도 지수들의 계산결과들도 신뢰할 만한 수준인 .90 값 이상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검증되었다.

4) 사회적 지지의 역할 결정과정 모델 분석



<그림 3> 사회적 지지의 역할 결정과정 모델: 최적모델

한국 이민노인들의 사회적 지지수준과 우울증에 미치는 직접적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볼 때, 정서적 지지와 대인관계적 영향이 각각 사회적 지지와 우울증 수준의 증감에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요인들로 나타났다(<그림 3>).

전체적으로 조절변수로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증가될수록 심리적 질환인 우울증세는 약화되며 그 직접적 영향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잠재적 스트레스 요인인 성인자녀와의 별거가 개입시,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상당히 저하되며(-0.25) 결과적으로 이민노인들의 직·간접적인 우울증 증가(직접 효과:-0.81, 간접 효과:(-0.25)*(-0.81)=0.20)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건강간의 인과관계는 더욱 더 많은 미국 내 이민 한국 노인들이 그들의 성인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이론적인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최근의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 노인들의 성인자녀와의 전통적인 농거형태가 이민이후에 해체되는 현상을 주목하였다. 즉 성인자녀와의 별거변인을 고려할 때 심리적 질환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역할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관하여 이론적 검증을 시도하였다. 또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국내 한국 이민노인들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증 정도간의 관계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두 가지 이론적 모델이 구체적으로 제안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다른 가족구성원과의 정서적 지지 접촉과 여가활동 참여 수준이 사회적 지지의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완화효과(buffering-effect) 모델이 직접적 효과(main-effect) 모델 보다 더 적합하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와 노인 본인의 여가활동 수준의 양과 질은 한국 이민노인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우울증세를 악화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나, 만약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자녀와의 동거여부를 고려치 않을 시 모델의 적합성이 심각히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와 논의들 통해 제시할 수 있는 함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과 친척으로부터의 강한 정서적 지지와 사회활동 참여수준이 미국에 이민 온 한국 노인들의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주지만 성인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그 역할이 상당히 감소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한국 이민사회에서 남자노인들 대다수가 본인들의 성인자녀와 별거하고 있다는 점(10.9%)을 고려할 때 별거상태가 그들의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는 심각한 우려를 남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즉, 미국의 한국인 주요 거주지역 내 노인관련 복지관들과 YMCA 등에서 현재 활발히 펼치고 있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사회활동 프로그램들이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한인노인들과 성인자녀의 왕래를 증진시키는 한편, 대화단절 현상을 극복하도록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자녀와의 동거여부가 사회적 지지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민노인들의 심리적 건강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내 사회적 지지자원들은 특히 현재 자녀들과 별거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의 우울증세가 심각하거나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이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저소득층 아시아계 가족들을 위한 각종 치료 및 상담 서비스 등도 취미활동이나 사회참여를 도울 수 있는 이민노인 재교육 등과 맞물려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미국 내 아시아계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연구에 기여하고 향후 관련 한국내 연구들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제시하고 있으나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끝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자료수집이 뉴욕의 한인 관련 주요복지관들에서만 이루어졌고 미 전역의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한인계층이 비교적 사회활동이 활발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응답자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성인자녀와의 실 별거율이 과소 또는 과대 평가되었을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이민기간이나 미국사회의 적응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우울증세의 변화에 대해서 본 연구모델에 포함되지 않아 이민노인들에 관한 후속 연구에서는 이 같은 점들을 반영하여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이가옥·서미경·고경환·박종철. 1994. 『노인생활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Barusch, A. S., Rogers, A., & Abu-Bader, S.H. 1999. Depressive symptoms in the frail elderly: Physical and psycho-social correlates, *International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9(2), 107-125.
- Beerhr, T. 1995. *Psychological stress in the workplace*, London: Routledge.
- Berkman, L. F., & Syme, S. L., 1979. Social networks host resistance and mortality: A nine-year follow-up study of Alameda County resident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09, 186-204.
- Blayer, D. G. 1982. Social support and mortality in an elderly community population,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15, 684-694.
- Byrne, B. M. 199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LISREL, PRELIS, and SIMPLI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ervilla, J. A. & Prince, M. J. 1997. Cognitive impairment and social distress as different pathways to depression in the elderly: A cross-sectio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2, 995-1000.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moderat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owgill, D. O. 1986. *Aging around the world*, Belmont, CA: Wadsworth, p.44.
- Dean, A., Kolody, B., & Wood, P. 1990. Effects of social support from various sources on depression in elderly person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1, 148-161.
- Dormann, C. & Zapf, D. 1999. Social support, social stressors at work, and depressive symptoms: Testing for main and moderating effects with structural equations in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4(6), 874-884.
- Flaherty, J. A., Gaviria, F. M., Black, E. M., Altman, E., & Mitchell, T. 1983.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the functioning of patients with unipolar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0, 473-475.
- Forsell, Y. & Winblad, B. 1998. Feelings of anxiety and associated variables in a very elderly pop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y*, 13, 454-458.
- George, L. K., Blazer, D. G., Hughes, D. C., & Fowler, N. 1989. Social support and the outcome of major depress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4, 478-485.
- Hays, J. C., Saunders, W. B., Flint, E. P., Kaplan, B. H., & Blazer, D. G. 1997.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as risk factors for loss of physical function in late life, *Aging and Mental Health*, 1(3), 209-220.
- Kahn, R. L., & Byosiere, P. 1992. Stress in organizations. In Dunnette, M. D. & Hough, L. M. (eds.),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nd ed, 571-650)*.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Kamo, Y. & Zhou, M. 1994. Living arrangements of elderly Chinese and Japanese in the United

-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544-558.
- Kiefer, C. W., Kim, S., Choi, K., Kim, L., Kim, B., Shon, S., & Kim, T 1985. Adjustment problems of Korean American elderly. *The Gerontologist*, 25, 477-482.
- Kim, K. C., Kim, S., & Hurh, W. M. 1991. Filial piety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in Korean immigrants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3(3), 233-245.
- Krause, N. 1997. Anticipated support, received support, and economic stress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52B(6), 284-293.
- Milagros, M. B., Asis, L. D., Knodel, J., & Mehta, K. 1995. Living arrangements in four Asian countries: A compa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Cross-Gerontology*, 10, 145-162.
- Li, L. W., Seltzer, M. M., & Greenberg, J. S. 1997. Social support and depressive symptoms: Differential patterns in wife and daughter caregivers, *Journal of Gerontology*, 52B(4), S200-S211.
- Lin, N. 1986. Modeling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Lin, N., Dean, A., & Ensel, W. (eds.),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Depression*, New York: Academic Press. 173-209.
- Lum, D., Cheung, L. Y., Cho, E. R., Tang, T., & Yau, H. 1980. The psychosocial needs of the Chinese elderly, *Social Casework*, 61(2), 100-106.
- Peirce, R. S., Frone, M. R., & Ruseel, M. 2000. A longitudinal model of social contact, social support, depression, and alcohol use, *Health Psychology*, 19(1), 28-38.
- Potts, M. K. 1997.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among older adults living alone: The importance of friends within and outside of a retirement community, *Social Work*, 42(4), 348-362.
- Sung, K. 1998. Filial piety in modern times: Timely adaptation and practice patterns, *Australian Journal of Aging*, 17(1), 88-92.
- Wallsten, S. M., Tweed, D. L., & Blazer, D. G. 1999. Disabili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the elderly: the effects of instrumental support and its subjective appraisal,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8(2), 145-159.
- Yoo, S. H. & Sung, K. 1997. Elderly Koreans tendency to live independently from their adult children: Adaptation to cultural differences in America.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2, 225-244.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in the 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Living Arrangements among Elderly Korean Immigrants

Kim, Hak-Ju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relation among social support, depressive symptoms, and living arrangements were examined in a non-random sample of 175 adults age 60 and older. A convenience sample was obtained through a personal interview.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was used to explore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 between the living arrangements of elderly Koreans and their level of depressive symptoms.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previous analyses suggesting that social suppor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moderating depressive symptoms, in relation to negative living arrangements among older Korean populations (the buffering-effect hypothesis).

[접수일 2002.7.31 게재확정일 2002.10.30]